해인사, 한국전쟁 아픔 치유한다

6월 6일~7일 수륙대재 · 추모음악회 봉행

오로단 설치… 희생자 추모
사회 각계 평화메시지 발표
기상나팔 등 파격적 의식도
오색 '10만 추모 연등' 장엄
사진전 등 문화 행사 다채

해인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다. 이유도 모른 채 증오의 총부리를 겨누고 많은 이들이 가족과 민족을 그리워하다 숨을 거두었다. 이들을 위한 화해의 영단(靈壇)이 해인사에 세워진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6월 6일~7일 경내 일원에서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 · 추모음악회'를 개최한다.

해인사 수륙대재는 한국 전쟁 70년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의 번영을 꾀하기 위해 개최된다. 수륙대재에 모시는 영가도 국군 뿐만 아니라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남북한 민간인 등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70년의 한(恨)과 아픔을 위로하는 '해원과 상생을 위한 장'이다.

해인사는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시 희생된 138만 명의 아픔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수륙대재와 추모음악회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과 평화, 통일, 번영으로 미래를 맞이하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일련의 추모행사는 6월 6일 '한국전쟁 70주년, 해인사 추모음악회'로 시작을 알린다. 추모음악회는 오후 7시 해인사 경내 보경당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하루 동안 해인사를 방문하는 모든 추모객을 위해 한국전쟁의 아픔을 보여주는 사진전이 열린다.

해인사 진입로와 경내 일대에는 추모를 위한 영가등이 설치돼 천도의 의미를 강조한다.

가족 단위로 해인사를 찾는 일반 방문객을 위해 △통일염원 소원지 작성 △사찰음식 체험 △에코백 및 스크래치 나이트뷰 체험(한국전쟁 상징 도안) △전통차 체험 △삐에로 마임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문화 체험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며 수륙대재가 열리는 7일에도 진행된다.


법보종찰 해인사 전경. 해인사는 6월 6일~7일 경내 일원에서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 · 추모음악회'를 개최한다.

수륙대재는 7일 오후 1시에 비로탑전 앞마당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봉행된다. 수륙대재는 전통의식과 함께 군 의장대, 군악대, 취타대, 어린이 합창단 등의 연주와 사회 각계의 평화 메시지도 발표된다.

해인사는 특히 영가가 올 수 있는 길, '오로단(五路壇)'을 설치한다. 오로단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상징하는 5개의 길을 하나의 길로 모으는 것을 상징하며, 육지와 바다 등 전국 각지에서 희생당한 영가들을 한길로 모으는 의미도 가진다. 비로탑을 중심으로 각 방위를 상징하는 5가지 색깔 천을 설치하고 하늘을 향한 쪽에는 오방천을 깔아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아군과 적군 등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영가를 모시는 대표 위패를 세우고, 영가 대역을 정해 오로단에 함께 서도록 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해인사 수륙대재는 전통 수륙대재에서 볼 수 없는 트럼펫 기상나팔 연주와 위령음악회 등도 진행해 파격적인 의식을 보여 줄 예정이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의식들은 한글로 진행한다.

해인사는 6월 6일 행사 당일까지 참배객들이 작성한 소원지로 꾸며진 '소원나무'를 수륙대재 당일 화로대에서 소지해 평화통일을 기원한다. 아울러 영가 천도를 위해 오색 10만등을 경내를 장엄한다. 오색 10만등은 1인 1등 3만원이다.

해인사는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모신 법보종찰이다. 팔만대장경은 호국불교의 정신이자 상징"이라며 "70주년을 맞아 봉행되는 수륙대재는 한국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화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5)934-3105~6

"안타까운 죽음 당한 영가 '왕생극락'을"

이천 물류센터 화재 희생자
불교계 단체 추모 이어져

이천불교聯, 천도의식 봉행
조계종 사노위, 규명 촉구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불교계 위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천시불교연합회(회장 인성) 소속 스님들과 신도 50여 명은 5월 6일 화재 참사 희생자 38명의 유해가 안치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천도의식을 진행했다.

스님들은 미리 준비한 '천혼문(薦魂文)'을 함께 합송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들은 천도의식 후 분향소 옆 유가족 대기실로 이동해 유가족들을 위로 했다. 이천 지역 스님들은 특히 사찰마다 기도를 올릴 것이라며 십시일반 모은 200만원을 위로금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이천시불교연합회장 인성 스님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은 전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비극이다. 삶의 터전에서 변고를 당한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았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며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에 이어 그동안 안전사고가 있어 안타깝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천시불교연합회는 5월 6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사진제공=기호일보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위원장 혜찬)는 5월 7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극락왕생 발원기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2008년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비슷한 원인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사고원인 및 책임규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중대사고 기업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국회에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대응

템플스테이 방역 강화 및 종립학교 등교 준비

불교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강화 등 코로나 예방에 다시 나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최근 템플스테이 재개에 따라 전국 139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코로나 정보 및 대응지침을 하달했다.

휴식형 템플스테이 운영으로 10인 이상 단체예약 금지 및 1인 1실 배정을 비롯해 참가자가 칫솔과 수건 등 개인물품을 지참하고, 공용식기 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개별 공양과 개별공양 불가능시 이용시간 조정 등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접촉 최소화를 요청했다.

또 각 방사마다 손소독제와 화장지, 비누 등 위생용품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방역을 위한 소독수와 함께 참가지 마스크도 지원키로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위생과 방역, 관리에 보다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안전한 템플스테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인근 의료기관과의 긴급 협력체계도 구축해 유사시에는 발빠른 대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안심하고 템플스테이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월 13일부터 진행되는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에 맞춰 종립학교들의 준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은석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책상마다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책상 간격도 1m가 넘도록 배치했다.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가 진행됨에 따라 등교시간을 차이가 나도록 하고, 쉬는 시간 학생들이 화장실과 매점 등에 몰리지 않도록 이용시간도 편차를 두어 운영키로 했다. 또 각 교실 입구마다 항균 필름을 부착하고 바닥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등 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편, 전국불교대학은 5월 초 일제히 개강했다. 조계종 포교원도 신도전문교육기관 학사지침을 내려 2주간 방역지침 준수와 관공서 방역점검 등과 연계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네팔 지진 피해 복구사업 '성료'

동행, 5년간 사업 진행
13개 피해 기관 도움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이 네팔 대지진 피해복구 사업을 성료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최근 "2015년 4월 네팔에 발생한 대지진 피해복구 사업을 5년간 진행해 13곳 시설에 대한 재건복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에서 진행한 복구 시설은 총 13곳이다. 2015, 2016년 NGO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구촌공생회와 다함께 나누는 세상(전 젊은부처들)이 초등학교 2곳 등 총 4곳의 복구를 완료했으며, 아름다운동행에서 직접 재건한 나머지 9곳은 올해 4월에 완료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으로 지진 이후 무너지거나 붕괴 위험이 있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교실, 도서관, 기숙사의 신축 및 개보수가 이뤄졌다. 특히 마을회관과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복구해 마을 내 복지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앞으로도 재건복구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팔의 긴급구호와 재건복구 사업은 지진 당시 많은 사찰과 불자들이 보내준 성금 약 23억원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신임 통일연구원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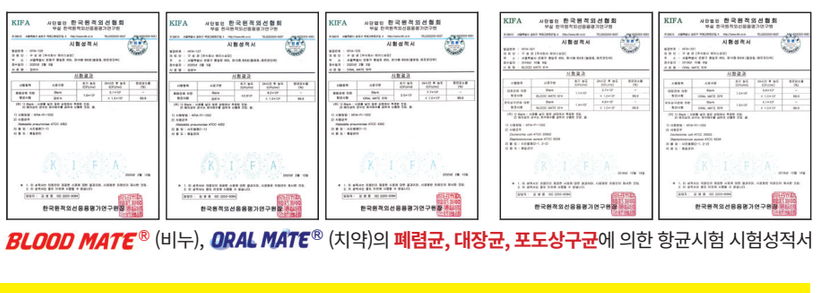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사진>가 4월 30일 통일연구원 제1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고 교수를 통일연구원장으로 선임 ·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1994년부터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로 있으며 북한연구학회 회장(2012년)을 지낸 바 있다. 2017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에서 위원장(2017~2019년)을 거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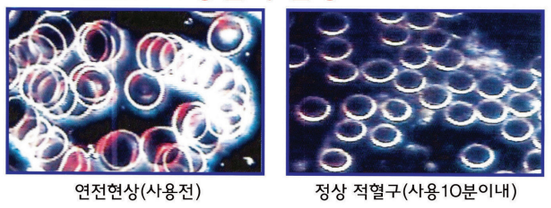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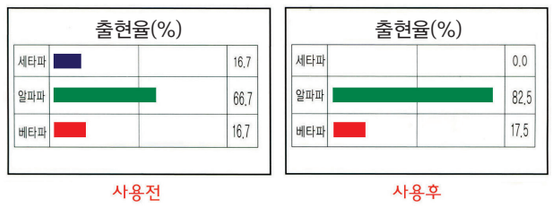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엉켜있는 연전현상의 적혈구는 정상적혈구로, 뇌파는 안정되고 혈액이 맑아지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과 다리에 쥐나는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개선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시에는 속이 빨리 편안해지며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잇몸이 튼튼해져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고,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부위에 치약을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 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